

촛불 밝히고 자리아타 서원

〈自利利他〉

희망법당 탐방 진선여고 수능서원불사

“모두어느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물었다. “학인이 앞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푹 쏘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경청 스님은 말했다. “역시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벽암록〉에 나오는 ‘졸탁동시(喑喑同時)’다. ‘졸’은 병아리가 겹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을 가리킨다. 어미닭은 밖에서 알을 쪼아 병아리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데, 이것이 ‘탁’이다. 동시에 알을 쪼기는 하지만 어미닭은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 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꿀 갈림의 순간, 또는 인생의 고비마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서원이 그때마다 필요한 이유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을 보름쯤 앞둔 10월 30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진선여고에서는 수능서원불사가 열

렸다. 이날 대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수능시험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며 선배가 함께 마음을 모아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1부 서원법회에서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수년간 갈고 닦아온 노력과 부모님들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가 헛되지 않도록, 또 인생의 큰 갈림길에선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법회에서 이 학교 정교실장 원암 정사는 “학생들이 이번 서원불사를 계기로 단순히 나만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뜻을 새겨 이웃에게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2부에서는 1,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3부에서는 진각종 중창

단인 JND소울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인순이의 ‘거위의 꿈’과 같은 노래로 희망과 꿈을 되새겼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면서 목청 높여 함께 노래했다.

JND소울의 리더 구장현 씨(진각종 문화사회부 과장)는 이날 학생들에게 “노래하는 것이 나의 전공이 아니었는데 대학에 가서 노래 부르는 길을 택해 열심히 달려오게 됐다. 대학학업은 보다 큰 공부의 시작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2년 동안의 공부를 평가받는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열린 서원불사에서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압박감이 크다. 촛불을 밝히고 모두 함께 잘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혜진 학생은 “이번 불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미대 진학 후에는 불상 조성 및 불교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 학생회 부회장이던 혜진이는 이를 위해 대학에 가서도 학내 불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혜진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독실한 불자로 어머니는 수능을 앞두고 매일 불은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혜진이는 “추운 날인데도 절에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요즘에는 실기 시험 준비로 함께 하느라 잠잘 틈조차 없다”고 웃었다.

서원불사를 마친 학생들은 등교 때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섰다.

노덕현 기자

그동안 노력 헛되지 않게 수험생에 지혜 용기 ‘팍팍’

나만 성공하겠단 맘 버리고 이웃도 이롭게 살라



수능서원불사가 열린 10월 30일, 진선여고 3학년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수계도 받았지만, 그런데 오게 중 살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죽어있는 고기를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트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칼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부처님의 말씀도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수도하는 수행자가 아닌 일반 불자입니다.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업을 놓고 오계를 지키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이며, 수행의 종교입니다. 재가불자는 다른 중생보다 좀 더 아량 있고,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담자께서도 열심히 일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보시행을 실천해 보시

Q 불교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과거 업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정해진 업이 인연에 의해 현재 일어난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 노력해도 업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만 지금의 노력이 미래나 후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윤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과거세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보다 좋게 다가가는 것보다 현재에 담긴 고통에서 헤어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불이법(不二法)과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통을 과거

살생하지 말았는데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감정상태를 '0'로 만드는 것이 해탈인가요

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내담자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며, 지금 직장에서도 불자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세의 인연으로만 보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한다고 한탄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Q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쁨과 고통을 없애서 감정상태를 '0'으로 만드는 건가요? 전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과거의 업(業)을 운운하며 낙심하고, 윤회법을 따진다면 현명한 생각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돼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행한다면 내세 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선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을 바꾼다는 생각을 버리고 참회와 기도정진을 열심히 하시면, 선업이 쌓이고 전생의 얇은 업은 소멸되고 두터운 업은 얇아지게 됩니다.

A 불교란 26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족 왕자로 태어나 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개조로 부처님의 설하심을 믿고 배우며 따르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진리를 알고 이를 행하는 삶은 자유롭고 편합니다.

윤회에는 육도윤회가 있습니다. 성불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 육도를 윤회합니다. 선업과 악업에 따라 육도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윤회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윤회를 면할 수 없고 성불해야 윤회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생과 내생을 알고 있습니다. 전생의 과보에 따라 현생이 있고 현재 행하는 바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당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단청분야의 대혁신!!!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만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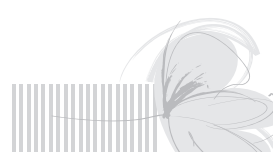
단청,행화,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채소과일 365! 가족건강 365!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五感) 만족』 건강캠프

- 일 시 : 2010년 11월 13일(토) ~ 14일(일) 1박 2일
- 장 소 : 전남 나주 심향사
- 참가대상 : 학생 학부모 (파라미타 회원 우대)
- 참가비 : 전액 무료 (공모지원사업)
- 문의전화 : 사)전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061)724-6277
나주 심향사 중무소 061)334-2880



주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가족건강365운동본부
주관 : 사단법인 전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